

# 부모에게 받은 방임과 학대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abuse on middle schoo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Jea-Hee W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요약**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청소년의 방임,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년 6차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생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구조방정식과 sobel testing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받은 방임, 학대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임과 자아탄력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58, p < .001$ ).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843, p < .001$ ). 반면, 방임, 학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5, p < .001 / \beta = -.035, p < .001$ ). 둘째, 완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부분매개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평가한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Z = -.169, t(CR) = -.012 (p < .05)$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on effects of adolescent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neglect, abuse and life satisfaction. The 6-year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collected from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Sobel te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th from neglect and abuse to life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family relations. The relations between trauma(neglect) and ego-resilience are negative( $\beta = -.258, p < .001$ ). The 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re positive( $\beta = .843, p < .001$ ). Second,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showed that ego-resilience was a full mediator between trauma(neglect) and life satisfaction for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Z = -.169, t(CR) = -.012 (p < .05)$ ).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Abuse, Ego-resilience,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Neglect

### 1. 서론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43]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속성을 지닌다[14].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Corresponding Author : Jea-Hee Woo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Tel: +82-51-510-0683 email: jhwoo@cup.ac.kr

Received September 11, 2017

Revised October 11,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52].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네델란드는 94.2점으로 30점 이상이 차이이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도 76.6으로 15점 이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매우 현저하게 낮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52].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14]. 그런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53]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더 낮은 삶의 만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가 만족되었다고 스스로 느끼는 상태인 것이다[57].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등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51].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12]. 더 나아가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발달에 대항하는 보호 요인이다, 성인기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수 있다[1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기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고 성격형성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9].

한편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가정생활에 있으며, 모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24].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시에 부정적인 발달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35]. 그 중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학대는 청소년의 정서, 행동, 성격 등의 발달과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다[42, 46, 54].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바 있다[10, 11, 24, 26]. 중학생이 되는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적응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28]. 청소년의 삶의 질은 가정생활을 통해 느끼는 전반

적인 생활만족도로 볼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경험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시기가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이후 만성적인 성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38].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등이 있다[33, 54].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으며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58].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외상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 역량이 작용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7]. 즉, 이미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을 받았더라도, 개인 내적 역량인 자아탄력성을 높인다면 삶의 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내적역량인 자아탄력성의 증진방안을 고려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하고 개입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임과 학대,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의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응의 문제가 과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청소년에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과 학대경험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학대와 방임의 부모양육방식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복지와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임, 학대 경험의 증상을 위한 일차적 개입에서 더 나아가 방임, 학대경험 이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학

대와 방임의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유용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전 조율을 하여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방임이 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임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학대와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보호요인과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증진 전략은 무엇인지 보다 세분화시킴으로써 심층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대, 방임의 외상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의 학대, 방임의 외상경험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방임, 학대와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49].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험은 폭력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가장 친밀한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발달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기에 양육자로부터 겪게 되는 학대나 방임의 경험은 한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29].

방임은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나 반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청소년에게 물리적인 위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가해지는 것이다[8].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청소년

들은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비난과 모욕을 내면 화하여 부정적인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40].

선행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냉대의 경험을 한 성인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 부적절감과 자기 비난, 자기 증오를 더 많이 경험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13, 34]. 또한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지지 등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28, 33, 36].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집중력 장애, 인지손상 등으로 학습성취가 어렵고 학교에서 위축되는 생활을 하게 되며[21]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9]. 즉, 학대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40]. 부모의 폭행과 폭언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면 청소년의 행동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변수이며[39]. 과거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40]. 허정윤과 유영달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학대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의 심리적 외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과 같은 일반 특성 변인보다 청소년 개개인이 인지하는 내적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31].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5].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절전략을 구사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이끌어 낸다[5].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욕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된다[18].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도 주변의 개입과 지원, 그리고 상호 노력을 통하여 증진시킬 수 있다[12].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15].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59].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5, 27]. 김지연과 정봉교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우울한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59].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대처전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잘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1]. 이순성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 부딪히며,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새로운 상황들에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얻는다고 했다[10].

여러 선행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3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기는 발달을 위한 도전의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며 삶의 양식과 행동의 기반을 위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발달은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 및 긍정적인 발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5, 18]. 발달상의 위협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충해주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보호요인

이 존재한다면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지만,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모두가 부적응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학대를 경험했지만 개인 내외적 보호요인이 작용하면 학대와 방임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46]. 즉, 학대와 방임 경험이 위협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나 방향을 바꾸는 매개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융통성, 정체성, 외향성, 적응력의 특징을 보인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설거나 위협한 상황에서도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특징을 보이며,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한다[48].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며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며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는 개념과 상이하다[15]. 즉, 자아탄력성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므로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외상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19]. 결과적으로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과 동시에 만성적인 중요 생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유능한 기능,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분류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22].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보영 등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의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5]. Mnsci & Astedt-Kurki, 김영, 임연식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에 자아탄력성의 매개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언급하였다[34, 48]. 권세원 등, 강명희, 이수연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33, 39].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방임, 학대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다. 방임과 학대의 경험을 독립변수로 살펴보기 보다는 양육방식, 양육태도 등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성격과 생활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과 학대의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중 방임과 학대의 경험을 한 변수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가설

1.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아탄력성은 방임, 학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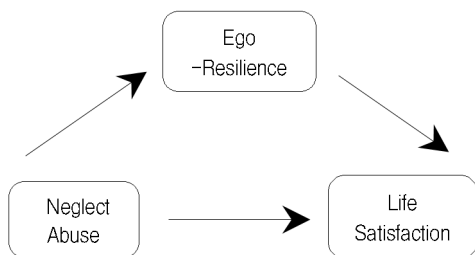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전반 아동,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별 환경 등에 관한 패널표본을 매년 1회씩 학급의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쌍이 표본으로 구성되어 다단계층화표집방법으로 반복 구축한 종단적 조사자료이다[37].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년 6차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생 총 2,056 명이다. 패널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 3.4 변수 및 측정도구

##### 3.4.1 방임, 학대

학대와 방임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허묘연, 김세원의 아동학대, 방임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37].

학대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서는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방임은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아프면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부모님 관련된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하신다’, ‘내 친구류나 내 몸을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학대 .824, 방임 .792이었다.

##### 3.4.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학생용으로 개발된 김상욱 등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척도 문항은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의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을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13이었다.

### 3.4.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an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의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5]. 본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분석되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41이었다.

### 3.4.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보호자 학력, 가정경제수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3.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AMOS 18.0을 이용하여 방입과 학대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규분포성 검증, 모형의 적합도 검증, Sobel test검증을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보호자 학력,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1,041명(50.6%), 여학생 1,015명(49.4%)이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817명(45.4%), 전문대졸 이상이 980명(54.6%)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023명(55.8%), 전문대졸 이상이 813명(44.2%)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약간 잘 사는 편 이상 388명(18.9%), 보통 수준 1293명(62.9%), 못 사는 편 이하 375명(18.2%)로 나타났다.

## 4.2 연구가설 검증

### 4.2.1 정규분포성 검증

정규분포성 검증은 일변량,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정규분포는 왜도가 2이하, 첨도가 7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은 정규 분포성 충족을 위한 검정결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요 변인들이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가능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eglect	1.914	0.501	0.067	0.637
Abuse	3.397	0.603	-1.161	1.298
Life Satisfaction	2.119	0.620	0.013	0.031
Ego-Resilience	2.108	0.406	-0.498	0.468

### 4.2.2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최대우도 추정치(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판단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CFI, TLI, RMSEA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다. CFI, TLI > .90, RMSEA < .05 일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u와 Bentler, 1999). 본 연구의 적합도 검증 결과 CFI=.968, TLI=.959, RMSEA=.049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하여 측정모형의 변수들은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Model fit indices

	df	CFI	TLI	RMSEA
420.725***	71	.968	.959	.049

\*\*\* p<.001

### 4.2.3 구조모형 및 가설검증

측정변수의 경로계수 결과를 바탕으로 방입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나 학대는 자아탄력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임, 학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결과( $\beta=-.258, p<.001$ ) 부의 관계이므로 방임이 심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결과( $\beta=-.005, p<.001 / \beta=-.035, p<.001$ )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3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결과( $\beta=.843, p<.001$ ) 정의 관계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모형분석 결과에 의해 가설 1은 채택( $t(CR)=-10.005$ ), 가설 2는 기각 ( $t(CR)=-.391, t(CR)=-1.620, p<.05$ ), 가설 3은 채택 ( $t(CR)=17.206, p<.001$ )되었다.

**Table 3.** The effect neglect, abuse of ego-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t(CR)
Neglect → Ego-Resilience	-.346	-.258	.026	-10.005***
Abuse → Ego-Resilience	-.054	-.097	.028	-1.195
Neglect → Life Satisfaction	-.010	-.005	.014	-.391
Abuse → Life Satisfaction	-.040	-.035	.022	-1.620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489	.843	.049	17.206***

\*\*\* p<.001

#### 4.2.4 경쟁모형과 매개효과 검증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부분매개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평가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은 가설 2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직접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의 차이검증을 통하여 완전매개모형의 검증을 분석하였다. <Table 4>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값의 차이는 47.3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Test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증결과 <Table 5>와 같이 간접효과 크기와 C.R.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4의 ‘자아탄력성은 가정환경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이다’의 가설은 검증되었다.

**Table 4.** Fit comparison

	$\chi^2$	df	CFI	TLI	RMSEA
partial mediation (study model)	420.725	71	0.049	0.968	0.959
full mediation (competition model)	468.094**	73	0.051	0.964	0.955

\*\*\* p<.001

**Table 5.** Sobel test

Path	Z(SD)	t(CR)
Trauma (Neglect) →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169	-.012*

\* p<.05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 간 값의 차이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임과 학대,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의 변수들 간의 관계와 가설 채택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과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 중 일부분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부모에 의한 부정서적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6,

34]. 반면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21, 40]. 둘째, 방임과 학대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간의 직접적인 관계 이외의 제3의 변수에 의한 영향력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적인 관계가 증명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삶의 만족도도 높다[27]’,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만족도가 높다[5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증명되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이상의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방임의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33, 34, 39, 48].

따라서, 중학생 1학년들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은 방임의 경험이 있음에도 삶의 의미를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학생 1학년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에 부모의 학대보다 방임이 더 의미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구성원 중 가장 영향력을 많이 제공하는 부모로부터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부모에게 방임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방임이 발생하는 상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방임발생의 양육태도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가정의 다양한 양육방식, 태도를 접하고 공유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의 방임발생에 대한인지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부모의 대상을 확대하여 예비부모, 맞벌이 부모,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 1학년에 있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내용과 같이 중학생 1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의 경험을 제공한 부모와 함께 자아탄력성 증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중학생에게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의 낮은 수준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대상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부모와 함께 참여시켜 방임의 영향, 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임을 예방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의 가족생활을 통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으로 삶의 만족도를 가져오게 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청소년기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이 된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가족향상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될 수 있다. 아동은 인생 전반에 가족과 특히 부모와의 관계정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하고 유지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가족향상성은 증진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 1학년 이외 아동,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자아탄력성 이외의 내적강화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변수요인을 확대 적용해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인을 활용하여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연구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동기 시기에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각시킨 실



천적 제안에 대한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방임의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실천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 Albanesi, E. Cicognani, & B. Zani,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7, no. 5, pp. 387-406, 2007.  
DOI: <https://doi.org/10.1002/casp.903>
- [2] J. Allen,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2001.
- [3] J. Y. An, Y. E. Son, & S. I. Nam,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Youth Studies*, vol. 21, no. 12, pp. 261-284, 2014.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Anderson, J. C. & Gerbing. 2013.
- [5] D. Ashley, E. S. Lewis, P. S. Huebner & F. Robert Valois.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Youth Adolescence*, vol. 40, pp. 249-262,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0-9517-6>
- [6] J. Block, & A. M. Krema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7] U. Bronfenbrenner,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 187-249). London: Jessica Kingsley. 1992.
- [8] J. Brown, P. Cohen, J. G. Johnson, & E. M. Smailes, "Childhood abuse and neglect: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8, no. 12, pp. 1490-1496. 1999.  
DOI: <https://doi.org/10.1097/00004583-199912000-00009>
- [9] C. P. Carr, C. M. Martins, S. Stingel, A. M. Lemgruber, & M. F. Juruena, "The role of early life stress in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childhood trauma subtypes",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201, no. 12, pp. 1007-1020. 2013.
- [10] Y. G. Choi, & S. M. Yoo, "Effect of Parental Environment,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ion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Brain Education*. vol. 14, pp. 1-26. 2014.
- [11] I.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al studies*, vol. 43, no. 3, pp. 105-129, 2012.
- [12] E. Diener, & F. Fujita, "Life s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8, no. 1, pp. 158-164,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13] M. Drapeau, & J. C. Perry, "Childhood trauma and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a study using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Child Abuse & Neglect*, vol. 28, no. 10, pp. 1049-1066. 2004.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4.05.004>
- [14] F. Fujita, & E. Diener,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8, no. 1, pp. 158-164,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15] L. Goldbeck, T. G. Schmitz, T. Besier, P. Herschbach, & G. Henrich,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vol. 16, pp. 969-979, 2007.  
DOI: <https://doi.org/10.1007/s11136-007-9205-5>
- [16] J. Y. Heo, & Y. D. You, "Influence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vol. 24, no. 1, pp. 177-211, 2012.
- [17] Hoggard, L. (2006). *How to Be Happy*.
- [18] I. Horstmanshof, R. Punch, & P. A. Cree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well-being among final-year high school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60, pp. 101-111, 2008.  
DOI: <https://doi.org/10.1080/00049530701477746>
- [19] E. S. Huebner,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6, pp. 3-33. 2004.  
DOI: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7.57754.e3>
- [20]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2, no. 2, pp. 170-189, 2004.
- [21] H. Y. Jang,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22] E. J. Jo, "How Parenting Influenc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5, no. 1, pp. 35-50, 2012.
- [23] Y. J. Jo, "A study on finding protective factors which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rom parents' abuse - comparis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Youth Culture Forum*, vol. 29, pp. 138-164, 2011.
- [24] S. H. Joe, & S. H. Park, "Life Satisfaction Factors of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vol. 23, no. 4, pp. 801-818, 2015.
- [25] M. H. Kang, & S.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6, pp. 265-293, 2013.
- [26] E. A. Kim, & M. Y. Bae, "Multiple Mediation Effects

-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9, pp. 155-176, 2016.
- [27] K. M. Kim,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As Intermediation with Ego-resilience", *Youth Culture Forum*, vol. 25, pp. 40-74, 2010.
- [28] S. K. Kim, M. K. Park, & J. S. An,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2, pp. 163-182, 2014.
- [29] J. Kim, & D. Cicchetti,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 and psychopathology",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51, no. 6, pp. 706-716,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202.x>
- [30] J. Y. Kim, & B. K.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Locus of Control Stress coping styl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6, no. 2, pp. 313-327, 2011.
- [31] S. J. Kim, "The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32] Kim, S. Y., Im, G. Y., Kim, S. U., Park, S. H. & Yoo, S. Y. (2006). Youth development index survey.
- [33] Y. M. Kim, & Y. S. Lim,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5, no. 2, pp. 343-366, 2013.
- [34] Y. M. Kim, & Y. S. Lim,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5, no. 2, pp. 15(2), 343-366, 2013.
- [35] E, H. Ko, "Desig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mobile application WikiTalki to promote English speaking skills in formal high school context",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 [36] H. Y. Koo, H. S. Park, & Y. H. Jang,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 1, pp. 151-158, 2006.  
DOI: <https://doi.org/10.4040/jkan.2006.36.1.151>
- [37]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youth index survey*. 2010.
- [38] J. E. Kwon, E. J. Lee, & C. R. Nho,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2, pp. 29-54, 2013.
- [39] S. W. Kwon, A. H. Lee, & I. H. Song,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2, pp. 39-72, 2012.
- [40] A. R. Lee, & N. J. Kim,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self concept on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7, no. 2, pp. 227-243, 2012.  
DOI: <https://doi.org/10.18205/kpa.2012.17.2.008>
- [41] E. J. Lee, & K. Y. Lee,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Stress and Challenging Behavior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2, no. 1, pp. 133-150, 2016.
- [42] S. K. Lee, & Y. H. Kim, "Effects of parents'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on hidden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5, pp. 245-267, 2011.
- [43] S.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by Culture and Arts in Korea and Chin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 [44] S. S. Lee, "Study on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45] Y. J. Lee, "The effects that parents' abuse is on self-esteemagg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youth",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 University.
- [46] S. O. Lim. & M. J. Park,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attitud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Low income and average-Level 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0, pp. 229-252, 2011.
- [47] S. J. Lee,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 [48] K. J. Mnschi, & P. Astedt-Kurki, "Familial contribution to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ve*, vol. 11, pp. 125-133, 2005.  
DOI: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5.00509.x>
- [49] S. H. Park,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elf-esteem,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50] Y. S. Park., Ui, Ch, Kim, K, S. Chung, H, H. Kwon, , & K. M. Yang,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rimary , Junior High ,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1, pp. 94-118, 2000.
- [51] C. L. Proctor, P. Linley, & J. Maltby,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Happiness Studies*, vol. 10, pp. 583-630,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110-9>
- [52] Youn-hab News, 2014.[
- [53] M. Shin, S. H. Jeon, & M. S. Yo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9, pp. 131-15, 2010.
- [54] J. S. Seo, & D. H. Le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4, pp. 1599-1622.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4.201012.1599>

- [55] B. Y. Sohn, Kim, Park, J. A. & Kim, Y. H.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1, pp. 149-173, 2012.
- [56] J. Stiring, & L. Amaya-Jackson,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Pediatrics, vol. 122, pp. 667-673, 2008.  
DOI: <https://doi.org/10.1542/peds.2008-1885>
- [57] M. S. Suk, & Y. G. Ku,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7, pp. 1, pp. 55-74, 2015.
- [58] S. K. Yoo, & H. Y.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pp. 4, pp. 189-206, 2002.
- [59] A. J. Joo, J. S. Lee, & J. M. Kim,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vol. 23, no. 5, pp. 123-132, 2005.

---

우 재 희(Jea-Hee Woo)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알코올중독